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9502

2010年 2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日本語 敬語用法의 硏究

- 敬語의 特性 및 誤用例를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金 恩 惠

日本語 敬語用法의 研究

- 敬語의 特性 및 誤用例를 中心으로

A Study on how to use an Honorific way of Addressing people in Japanese
-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honorific Japanese and Examples of its misuse Japanese

2010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金恩惠

日本語 敬語用法의 研究

- 敬語의 特性 및 誤用例를 中心으로

指導敎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金恩惠

金恩惠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朴 靑 國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金 仁 炫　　印

委　員　朝鮮大學校　副敎授　丁 意 祥　　印

2009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第1章 序　論 ····· **1**

第2章 本　論 ····· **4**

第1節 敬語의 分類와 機能 分析 ····· 4

1-1. 敬語의 分類 및 先行研究 ····· 5

1-1-1. 現代 日本語 敬語의 2分類 ····· 6

1-1-2. 現代 日本語 敬語의 3分類 ····· 9

1-2. 敬語의 機能 ····· 13

1-2-1. 辻村에 의한 敬語의 機能(1956) ····· 14

1-2-2. 大石에 의한 敬語의 機能(1975) ····· 16

1-2-3. 北原에 의한 敬語의 機能(1988) ····· 17

1-2-4. 柴田에 의한 敬語의 機能(1988) ····· 18

1-2-5. 그 외의 기능들 ····· 20

第2節 現代 日本語 敬語의 特徵 ····· 20

1-1. 対象敬語中心 및 謙讓表現의 弱化 ····· 20

1-2. 社交的인 敬語表現 ····· 23

1-3. 敬語의 混乱性과 簡素化 ····· 25

1-4. 商業主義 敬語의 氾濫 ····· 29

第3節. 日本語 敬語의 誤用例로 살펴본 問題点 ····· 30

1-1. 尊敬語 用法의 問題点 ····· 30
1-1-1. 尊敬語의 衰退 ····· 30
1-1-2. 過剩 敬語의 使用 ····· 34
1-2. 謙譲語 用法의 問題点 ····· 36
1-2-1. 申す ····· 39
1-2-2. あげる ····· 46
1-2-3. いただく ····· 49
1-2-4. いたす ····· 51
1-2-5. うかがう ····· 54
1-2-6. まいる ····· 56

第3章 結　論 ····· 61

参考文献

表 目 次

<表 1> 柴田武의 敬語分類 ····· 19
<表 2> 敬語 使用에 관한 説文結果 ····· 27
<表 3> 6개 動詞의 要約図表 ····· 59

ABSTRACT

A Study on how to use an Honorific way of Addressing people in Japanese

-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honorific Japanese and examples of its misuse Japanese -

by Kim Eun-hye
Adviser : Pro. Kim In-hyeon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Languages have been changed without a break and the first tiny canonical alterations have been developed to the systematic and holistic changes by steps so that it is a very significant work to investigation of misused expressions on the analysis of language changes.

Therefore it was focused on major current of language changes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many example sentences pointed as misused cases from a diversity of data related.

Meanwhile, this study focused on arranging the example sentences, too.

As a result, a decline of honorific expressions to the third person or simplification has been shown in the sentences with お～／ご～.

Second, in reverent verbs as like 「申す」「あげる」「いただく」「いたす」

「うかがう」「まいる」.

we can see very frequently usage of those verbs as honorific expressions.

There is a problem whether we recognize these expressions is wrong according to norm consciousness or accept itself due to accepted usage.

As we have seen, a language system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that reduction of vertical organization has become normal could explain major current of modern japanese.

The modern polite expressions have been being simplified, but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honorific commercial business language going against the stream is getting noticeable.

Because in the business world, polite expressions are working absolutely and it doesn't seem that just normal expressions are enough for business, the tendency to stress the need of polite expressions has occurred and seemed getting serious.

At the conclusion, according that the times change, old honorific language related a social position has been reduced by steps and it seems that relative polite, social polite, and commercial business expression is getting increased.

第1章 序　論

언어 사용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에 의한 의사 전달은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화자 중에서 제 3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화자는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언어의 행위와 형식은 화자와 청자와의 인간관계에 의해 규제되며 형성된다. 이러한 언어의 형식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경어'이다.

올바른 경어의 사용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풍요로운 사회생활의 형성 등, 인간이 영위하는 생활 속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어는 일본어의 언어 체계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의 기본 구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어가 빠진 일본어는 있을 수 없다고 흔히 말한다.

즉,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인이나 일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경어란, 일상적인 언어 그 자체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어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빼놓을 수 없는 언어적 요소인 것이다. 「敬語講座(1)」(明治書院、1974)의 편자인 林四郎 · 南不二男는 서문에서 언어적 요소인 경어의 기본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① 경어는 어떻게 말하고 쓰는가 하는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행동의 전반에 관한 문제이다.

② 경어는 존경, 겸양, 정중의 세 종류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법이나 빌리는 법의 관계, 수수(受授)관계, 환대 · 냉대의 관계, 친소(親疎)관계 등의 각종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우 표현을 폭넓게 포함한다.

③ 경어는 하나의 언어 관계 속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언어의 기본 구조를 지배하며. 그 언어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거대 시스템이다.

④ 경어는 일본어만의 특수표현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어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⑤ 경어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해 가는 것으로 하나의 형식이 영구불변하는 규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음 세대의 경어는 지식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그 근본을 이해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어는 일본어를 특징짓는 가장 큰 요소로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원만하고 풍요롭게 해 주는 기능을 발휘해 왔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양어 모두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언어로서, 문법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음운론 · 형태론 · 통어론 · 의미론적인 면에서

대조, 분석해보면 양어 사이에 상이(相異하)는 점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인 화자가 일본어를 외국어로서 배울 때에는 이 상이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만 한다. 한국인들이 종종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문형을 선택할 때 각각의 문형이 어떠한 표현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주의하게 쓰기 때문에 발화와 표현 의도가 서로 어긋나 버리는 경우이다.

한국인의 화자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용 중에서, 경어의 습득 과정에서의 중간언어[1]의 오류를 중심으로 유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즉, 오류의 원인은 어떠한 점에서 기인해 온 것인가, 그 오류를 막기 위해 어떠한 학습 태도를 취하면 좋은가 등을 연구하는 것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대조 언어학의 입장에서 한국어 화자가 일본어의 경어를 배울 때에나,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오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오용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중간언어 : 중간언어란 학습자의 모국어도, 목표 언어도 아닌 습득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중간적인 언어이다.

第2章 本　論

第1節 敬語의 分類와 機能 分析

일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경어는 매우 중요한 역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경어를 분류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경어의 분석에는 저마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어 교육사전」[1]에는

「敬語というものは待遇表現のうちの丁寧な言い方として話し手、書き手が聞き手、読み手、又は話題の人に対する待遇配慮から使う丁寧な表現である。」

「경어란, 대우표현 중에서 정중한 표현으로서 화자, 필자가 청자, 독자 또는 화제의 사람에 대한 대우배려해서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현대 일본어의 경어는 '정중함(politeness)'을 표현함으로써 원만하고도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즉, 경어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화제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화자의 언어 행동과 언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2]

1-1. 敬語의 分類 및 先行研究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경어라고 부르는 형식경어(lexical politeness)는 존경어와 겸양어를 포함하고, 음성의 운율적 특성이 나타나는 음성경어(phonetic politeness), 비언어적 행동 특성을 수반하는 행동경어(nonverbal politeness)를 좁은 의미의 경어라고 한다.

이는 경어는 대우표현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거나, 상대방을 정중하게 표현하는데 쓰이는 표현으로서 좁은 의미의 경어가 적절하게 작용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일본어의 경어의 분류에는 학자들에 따라 2분류, 3분류, 4분류 등 여러 방

---

1) 『日本語教育辞典』、大修館、1982、p.227

2) 国立国語研究所　『敬語教育の基本問題　下』1991、大蔵省、p.3

법으로 나누어져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류가 吉岡鄕補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3분류와 그 3분류를 정면으로 반박한 時枝誠記 등의 2분류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어의 분류에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어의 성질에 의한 분류
② 인칭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③ 경어의 대상에 의한 분류
④ 표현상 차이에 의한 분류
⑤ 경어의 성립 요소나 조건에 의한 분류

위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진 분류들 중에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2분류와 3분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1-1. 現代 日本語 敬語의 2分類

일본어 경어를 2분류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山田孝雄、時枝誠記、辻村敏樹 등이 있으며, 이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山田孝雄[3)]

大正시대 말기, 山田孝雄는 경어를 인칭과 관련지어 경칭(敬称)과 겸칭(謙称)으로 2분류하였다. 즉, 제1인칭 구(句)에는 겸칭을 사용하고, 제2인칭 구에는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경어와 인칭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제1인칭 구에 사용하는 겸칭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手前」「いただく」「存ずる」「です」등이 있고, 제2인칭 구와 제3인칭 구에 사용하는 경칭에 해당하는 단어로는「あなた」「お金」「おっしゃる」「くださる」등이 있다고 했다.

그의 분류법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정중어에 대한 설정이 없다는 점이다. 정중어의 대표적 형태인 조동사「です」가 겸칭에 속한다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山田孝雄의 2분류에 대한 예문을 들면 아래와 같다.

---

3) 北原保雄, 외, 『日本文法辞典』有精堂, 185, p.321

例1) 医者がおっしゃいました。

例2) 是非伺いたく存じます。

例1)는 제2인칭과 제3인칭에 쓰이는 경칭에 대한 예문이고, 例2)는 제 1인칭에 쓰이는 겸칭에 대한 예문이다.

2) 時枝誠記[4)]

時枝誠記는 경어의 3분류를 정면으로 반박한 학자로서 자신의 문법론인 '詞 · 詞論'에 근거하여 경어를 분류하였다.

時枝誠記의 경어 분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화자(話者)의 경의(敬意)는 흔히 말하는 정중에서만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중시하였고, 존경어와 겸양어는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표리(表裏)를 이루기 때문에 존경어와 겸양어는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時枝誠記는 경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그의 분류 근거가 되는 時枝誠記의 문법론은 언어과정설로, '詞'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개념 과정을 포함하는 형식이다.

경어 분류상에서의 '詞'는 소재의 상하존비의 인식파악의 방법에 관한 경어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화자와 소재와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과 소재와 소재와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자를 존경어에 대비시키고, 후자를 겸양어에 대비시켰다.

'詞'는 표현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개념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형식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정중어이다.

그의 경어 분류는 다음과 같다.

例3) これから社長が話されます。

例4) もう結構いただきました。

例5) 私が明子さんの高校へ行きます。

例3)은 '詞'에 속하는 경어 중에서 화자와 소재와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에 해당되는 예문이고, 例4)는 소재와 소재와의 관계를, 例5)는 '詞'에 해당되는 경어의 예문이다.

---

4) 北原保雄、『論集　日本語研究、敬語』、有精堂、p.82

3) 辻村敏樹[5)]

辻村敏樹는 山田孝雄와 時枝誠記의 경어 분류를 종합하여 보다 복잡한 경어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록 나누었으며, 그의 분류법은 오늘날 대표적인 경어 분류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辻村敏樹는 소재(所在)경어와 대자(対者)경어로 경어를 분류하였다.

소재경어로는 본질적으로는 소재의 상하존비의 존재 방식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경의(敬意)나 겸의(謙意)는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소재경어는 다시 상위 주체어와 하위 주체어, 미화어로 나뉘는데, 상위 주체어는 존경어에, 하위 주체어는 겸양어에 속한다. 이들은 또한 각각, 절대 상위(하위) 주체어와 관계 상위(하위) 주체어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소재와 대자의 구별은 時枝誠記의 분류에, 관계와 절대의 구별은 山田孝雄의 분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辻村敏樹는 또한 정중어를 대자경어와 미화어로 구분했다.

대자경어는 반드시 대자를 예측한다고 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반면에, 미화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사교 생활이나 품위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의 경어 분류는 다음과 같다.

例6) お食事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
例7) お花を一本くださる。
例8) 工夫をいたす所存です。
例9) 先生に何をして差し上げましょうか。
例10) 英語の会話練習をして、お風呂に入って寝ます。
例11) お母さんも元気です。

例6)은 절대 상위 주체어, 例7)은 관계 상위 주체어, 例8)은 절대 하위 주체어, 例9)는 관계 하위 주체어, 例10)은 미화어, 例11)은 대자경어에 관한 예문이다.

1-1-2. 現代 日本語 敬語의 3分類

일본어의 경어를 3가지로 분류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吉岡郷甫、石坂正蔵、小林好日 등이 있다.

---

5) 辻村敏樹의 경어 분류는 2분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흔히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로 분류하는 3분류에 대해 미화어로 따로 분류하는 경어의 4분류로 보기도 한다

1) 吉岡郷甫[6]의 분류

경어를 3분류한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인 吉岡郷甫의 분류는 온건(穩健)한 분류로 받아들여져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현행의 학교 문법도 그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즉, 吉岡郷甫는 경어를 경양동사(敬讓動詞)와 경양상의 조동사로 나누어, 「타자에 관해 높여 말하는 것」을 존경어, 「자기나 자기측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겸양어,「말투를 정중히 하는 것」을 정중어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존경어에 속하는 것을 보면, 「おっしゃる」「くださる」「お聞きになる」「聞かれる」「お聞きくださる」「おことば」등이 있고, 겸양어에는「いたす」「いただく」「うかがう」「さしあげる」「お招きする」「お返事」등이 있으며, 「行きます」「鉛筆です」「お茶」등의 단어가 정중어에 속한다고 했다.

吉岡郷甫의 경어 분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例12) 社長がお帰りになりました。
例13) 妹がいたします。
例14) これは英語の本です。

例12는 존경어, 例13은 겸양어, 例14는 정중어에 관한 예문이다.

2) 石坂正蔵[7]의 분류

石坂正蔵는 山田孝雄의 인칭에 따른 분류를 기초로 하여 '경어적 인칭'을 기준으로 하여 경어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石坂正蔵는 山田孝雄에서 조동사 「ます」등을 겸칭(謙称)에 포함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체계 내부의 무리를 지적하고, 조동사「ます」등을 무인칭적 인칭으로써 경어적 범칭((汎称) 謹称)으로 나누어 경어를 3분류하였다.

石坂正蔵는 소재가 '화자'나 '화자쪽에 있는 것'데 대해서는 경어적 자칭 즉 겸칭(謙称)이라고 하여 겸양어에, 소재가 '화자'나 '제3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어적 타칭 즉 존칭(尊称)이라 하여 존경어에, 조동사 「です」「ます」등에 대해서는 무인칭적 인칭으로서 경어적 범칭 즉 근칭(近称)이라고 하여 정중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의 경어 분류에 대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6) 武田孝 外, 『日本文法辞典』、有精堂、1985, p.320

7) 北原保雄、『論集　日本語研究、敬語』、有精堂、1978, p.90

例15) 私は申し上げる。
例16) 小泉総理
例17) 喫茶店で友だちに会いました。

例15는 경어적 자칭(겸칭)에 해당하고 例16은 경어적 타칭(존칭)이며 例17은 경어적 범칭(근칭)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3) 小林好日[8]의 분류

山田孝雄와 石坂正蔵과 같이 小林好日도 인칭을 분류하여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小林好日는 「존위(尊位)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물이나 동작에 대해 특히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존칭(=존경어)라 하고, 「존위 또는 자기에 관한 사물, 동작에 대해 비하(卑下)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비칭(卑称)(=겸양어)라 하며, 「존비와는 관계없이 자기 쪽인지 상대방 쪽인지를 불문하고, 사물이나 동작을 정중하게 말하는 경우」를 정중칭(=정중어)라고 구분하여 경어를 나누었다.

그의 경어 분류는 다음과 같다.

例18) 社長がおっしゃいました。
例19) 就職祝いのお返しをする。
例20) 会議は5時からです。

例18은 '존칭'이며 例19는 '비칭(卑称)', 例20은 '정중칭'에 관한 예문이다.

이와 같이, 경어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졌으며, 이러한 분류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3분류법으로, 경의(敬意)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존경어 · 겸양어 · 정중어로 나누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時枝誠記는 존경어와 겸양어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표리 관계에 있으므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여, 3분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辻村敏樹는 정중어를 반드시 예측하는 타자경어와 사교 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미화어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하여

8) 北原保雄,, 『日本文法辞典』、有精堂、1985, p.322

경어의 3분류를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 이유에 종래의 타성을 뺄 수는 없겠지만, 존경어 · 겸양어 · 정중어라고 하는 분류 명칭어, 경의의 방향, 경어적 특별 위치를 분별해서 나타내는 관용성에 더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3분류의 장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써 본고에서는 3분류의 명확한 판별로 인해 나타나는 편리성과 유효성을 가진 吉岡郷甫의 존경어 · 겸양어 · 정중어라는 3분류법을 따르기로 한다.

1-2. 敬語의 機能

일본어에 있어서 경어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등 다른 언어권에서도(한국어 등은 제외) 보기 힘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어가 어떠한 이유로 탄생되었는지 본고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경어의 유래에 대해 辻村敏樹(1981)은 「경어는 원시 시대의 신이나 천황에 대해 경외감을 표현하는 기분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기분을 완곡하게 돌려 표현함과 동시에 그들을 찬미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 아름다운 말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말이 후에 경어가 되었다」며, 辻村敏樹는 설명했다.

이와 같이, 경어는 경의나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한 말로서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그 사용의식이 점차 변하여 현대의 경어는 신분이나 계층의 절대적 상하관계에 의한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 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손위 사람이라고 하는 장면적인 제약을 받아 사회적 습관에 따라 단지 정중한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는 의식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경어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辻村敏樹에 의한 敬語의 機能(1956)

辻村敏樹는 경어 사용의 의식변화에 대해서 「고대는 경비(敬卑)의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친소(親疎)의식이 강해져 오늘날에는 거기에서 더욱 발전한 형태의 내외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경어의 기능에 대해 5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다.

① 상하의 식별에 의한 습관적 경어

- 손위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어란, 존경의 기분과는 무관하며 단지 상하관계의 식별에 의한 습관적인 표현이다

② 은혜자, 우위자(優位者)에 대한 경어

- 예를 들어, 손님에 대한 상인(商人)의 말(여기서 손님은 우위자가 된다), 의사에 대한 환자의 말, 교사에 대한 학부형의 말 등에서 사용되는 경어는 결코 경의(敬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산적인 기분으로 말하는 것이다.

③ 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어

- 원근친소(遠近親疎)의 식별을 위한 표현, 예비지식이 전혀 없는 첫 대면인 사람에게도 반드시 경어를 쓰는데, 그 이유는 자기방위 기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경어 사용의 정도는 친근함의 정도에 반비례하며, 경의감과는 별 관계가 없다.

④ 품격 유지를 위한 경어

- 상하친소(上下親疎) 등의 관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에 따른 경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양이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경어를 쓴다는 것은 교양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경우의 경어 사용은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⑤ 자기에게 사용하는 경어

- 「お父さんが取ってあげましょう」「さあ、医者の方を向いて」와 같은 친애하는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와 「そろそろ俺様もおみこしをおあげ遊ばすか」와 같이 익살스러운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의 2가지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사용하는 표현을 역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익살스러움으로 친근한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辻村敏樹는 현대의 경어 사용은 경의감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고, 단지 상하관계의 식별에 의한 관습적 표현이라는 것을 경어 기능의 첫 번째로 들고 있다.

1-2-2. 大石初太郎에 의한 敬語의 機能(1975)

그는 계급적인 신분관계에 의거한 시대의 경어를 「계급 경어」혹은「상하 경어」라고 부르고, 유동적인 사회 관계에의 적응을 목표로 하여 사용하는 현대 상대경어를 「사교경어」또는「좌우경어」라고 불렀다. 즉, 그는「계급경어→사교경어」또는「상하경어→좌우경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일본어에 있어서 경어사용의식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어의 동요' 배경에 대해 그는「사회적 의식, 대인의식의 민감함에 의한 경어 활동의 활발함, 활동적인 사회생활 속의 언어 경제, 능률화의 요구 전근대적인 인간관계에서 근대적인 인간관계로의 이행의 신속함, 전국 각지와의 끊임없는 인구이동 등, 여러 가지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어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 높임의 표현
- ㉠ 지위, 능력 등을 높인다. ㉡ 우위자를 높인다. ㉢ 신세진 사람을 높인다. ㉣ 인간의 존중 등
② 거리감을 두는 표현
- 첫대면의 사람에게 하는 말 등
③ 격식표현
- 공적인 장소(회의석, 발표회 등)에서의 말
④ 품격, 장식,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
- 경어를 교양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친애를 나타내는 표현
- 「さん」「くん」「ちゃん」「あげる」「ちょうだい」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존경보다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

1-2-3. 北原保雄에 의한 敬語의 機能(1988)

北原保雄는 기본적으로 경어는 경의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동작주, 동작대상, 소유주, 또는 천자에게 존경하는 기분을 표현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전제한 후, 경어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 존경
-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손윗사람 등을 존경한다. 또한 손님에 대한 상인, 의사에 대한 환자, 교사에 대한 학부모 등은 은혜를 입은 약자로서 경어를 사용한다. 현대에는 상하관계에 의한 경어보다 앞서 말한 은혜, 부담 등에 의한 경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② 격식

- 친한 사이의 친구라도 어려운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경어를 사용한다.

③ 소원(疎遠)

-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경어를 사용하지만, 점차 친해지면서 경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다

④ 품위유지

- 교양있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라도 경어를 쓰며 상스러운 말은 쓰지 않는다. 귀부인은 강매를 강요하는 외판원들에게도 경어로 말을 한다.

⑤ 상냥함

-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경어 특히 미화어나 정중어를 사용하는 것은 품위유지라기 보다는 상냥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반대로 경어를 쓰지 않고 말을 하면 거칠고 무서운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이, 北原保雄는 경어의 기능으로 존경을 첫 번째로 꼽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상하관계에 의한 경어보다는 은혜나 부담 등의 사회적, 심리적 관계에 의해 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2-4. 柴田武에 의한 敬語의 機能(1988)

柴田武는 경어 사용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 상대를 존경하거나 경원, 소외한다.
② 표현을 미화한다.

柴田武에 의하면 경어의 기능에 대해 「존경어, 겸양어 양쪽 모두 목적은 하나① 이다. 즉,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존경어의 방법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표현이 겸양어의 방법으로 어느 쪽이든 사회적,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들이다. 이는 플러스 경어의 경우이며,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얕보는 마이너스 경어도 있다

②의 경우는, 정중어가 그 플러스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마이너스 경어는 거친표현(ぞんざい語)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帽子はそこにあるよ。わすれなさんな」는 거친 표현이고,「お帽子はそこにございますわよ。おわすれにならないでね。」는 미화표현, 다시 말

하면 정중어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柴田武의 경어를 분류하면 표1과 같다.

〈표 1〉 柴田武의 경어 분류

	플러스 경어	마이너스 경어
상대방	존경	비매(卑罵)
자 신	겸양	비하(卑下)

이처럼, 柴田武는 플러스 경어와 마이너스 경어로 경어를 나누었으며, 경어 사용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존경이나 경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사회적,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언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은 Lakoff(1977)의 「정중함의 원칙(politeness principle)」[9]와 일치한다.

1-2-5. 그 외의 기능들

宮地 裕(1983)은 2분류를 택하여「경(敬)의 말」과「예(礼)의 말」로 경어를 구분하고, 경어를 사용하는 의식은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예의로 사용한다고 보아 현대 일본어의 경어를 「예(礼)의 말」로 규정했다.

이상으로,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경어의 기능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어는 존경심이나 경의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격식표현, 소원(疎遠), 품위유지, 친애함의 표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Lakoff는 언어의 운용에 있어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전달에 관련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 양자의 사회적 상호관계 등을 고려한 활용론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정중함의 원칙(politeness principle)」을 주장했다.

① 형식성의 원칙(Rule of Formality)
② 선택성의 원칙(Give options)
③ 동등성의 원칙(Show sympathy)

①은 상대방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것으로, Lakoff에 의하면 격식을 갖춘 장면(formal)에서의 「you」와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장면(informal)에서의「you」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언어사회에 있어, 만약 격식을 갖춘 장면의「you」를 쓰면, 그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의사나 변호사가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상대방과의 일정한 거리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비언어적으로는 정장을 입는 것도 형식성의 원칙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한다.

Lakoff가 주장한 정중함의 원칙은 일본어의 경어가 가지는 기능 중 辻村敏樹의「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어」, 大石初太郎의「거리감을 두는 표현」, 北原保雄와 柴田武가 주장한「소원(疎遠), 소외(疎外)」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第2節 現代 日本語 敬語의 特徵

1-1. 相対敬語中心 및 謙譲表現의 弱化

현대 경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상대경어중심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겸양어 표현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언어의 역사 속에서 현대 일본어는 전형적인 상대경어의 시대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화자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상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경우, 존경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겸양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도 사용되고 있다는 말은 현대의 생활에서 화자가 자기쪽으로 취급하는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경향, 즉 화자중심의 경어 확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대 경어가 다른 시대와 구분되는 특징인, 절대경어로부터 상대경어로의 변화는 일본어의 경어 역사상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

현대경어표현법의 추이에 관하여, 현대는 과거경어표현법의 시대와는 다르며, 또한 경어의 표현형식의 부분에서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하나의 특색이란, 상대경어에 일변도(一辺倒) 경향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です」「～ます」주체의 정중어 표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른바 존경어와 겸양어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특수한 형태로서의 경어적인 파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例1) お目にかかって詳しい事情をうかがいたいと存じます。

例2) おあいして詳しい事情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例3) あって詳しい事情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

위의 예문이 例1)→ 例2) →例3)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11].

---

10) 辻村敏樹「敬語史の方法と問題」、『講座国語史5敬語史』、大修館書店、1971、p.15

결국, 경어에서 존경어, 겸양어의 쇠퇴는 상대경어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존경어 등이 정중어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며, 이는 또한 경어의 레벨이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존경어 등이 정중어화되었다는 일례로서, 「いらっしゃる」를 들 수 있는데 손님이 점원에게 例4)와 같이 말을 한다면, 점원은 例5)처럼 대응한다.

例4) 医者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例5) あちら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例6) お名前は何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例7) 何の職業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물론, 例5)의 예문 대신에 「これですか」라고 말한다면, 이는「です」체임과 동시에 경어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いらっしゃる」를 사용한 표현형태보다는 듣는 입장에서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닐 것이다.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는 例6)과 例7)의 「いらっしゃる」의 경우도, 존경어가 이른바 정중어의 범위까지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오늘날 일본어에서는 「～です／～ます」체의 확대에 의한 상대경어가 점차 간소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경어사용자의 입장에서 경어를 번거롭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현대 경어에서 상대경어를 중시하는 경향은 경어의 근원적 의미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배려한다고 하는 점과 합치되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다. 경어는 원래 의사전달의 기능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경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전달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경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경어무용론자'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서 인간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게 해준다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특히,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특별하게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점에서 경어로의 발전 현상은 앞으로도 보다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 전망된다.

1-2. 社交的인 敬語表現

11) 辻村敏樹에서 「お目にかかる」、「うかがう」、「存ずる」등과 같은 특수한 어(겸양어)는 모두 형식화되어서,「お～する」의 형식 속에 포함되던가,「～する」의 형식으로서 처리되어 버린다고 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현대 경어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경어의 역사상 주목받고 있는 점이다.

1941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예법요항(礼法要項)」에서「언어사용(言葉遣ひ)」이라는 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위사람에 대해」의 표현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52년에 발표한「앞으로의 경어(これからの敬語)[12)]」는「각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상호존경(各人の基本的人権を尊重する相互尊敬)」에 기초를 두고, 경어사용의 기준을 세우려고 한 것이었다.

이 양자가 근본적이면서 대립적인 차이는, 전자와 후자의 사회구조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자의 경어는 상하경어, 신분경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어는 좌우경어, 사회경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경어는 계급제의 반영에 의해 계급경어로서의 성격이 강해, 여러 계급의 언어표현의 차이는 화자와 청자와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거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상하관계, 신분관계가 경어 사용의 주요한 기준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경어 사용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친소(親疎) 관계를 들 수 있다. 친하지 않는 사이에서의 언어표현 속에 경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친근한 표현을 자제하고, 격식을 갖춘 태도로 거리감을 두는 표현을 하려고 할 경우에 경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소관계가 경어 사용을 크게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사교경어시대의 큰 특징의 하나이다.

또한, 사교경어를 쓰는 요인 중에 교양주의에 의한 품위유지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 미화어 등으로 분류되는 협의의 경어든지, 보다 폭넓은 언어적 예의의 다양함을 포함하는 광의의 경어든지 그것은 교양성에 관련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양경어는 경어표현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화자 자신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현대 경어는 그러한 용법이나 사회적 경어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정적인 상하관계나 신분관계가 극히 희박해진 현대 사회에서의 경어의 사용은 오히려 이해관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상업경어이다. 과거와 같이, 아직까지도 극존칭의 경어가 쇠퇴하지 않은 곳이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백화점이나 호텔 등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현재 경어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대부분이 간소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경어만은 전혀 간소화되지 않고, 오히려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12) 1952년, 제1기 국어심의회가 문부총리에 건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관계있는 문제의 하나인 경어를 언급하였다. 이후, 실정에 맞춘 명확하고 간소한 새로운 경어법의 사용을 건의했다. 「まえがき」、「一人をさすことば」로 시작하여 「十二むすび」까지 총 12항에 걸쳐 구성되었다.

1-3. 敬語의 混乱性과 簡素化

현대 경어의 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은, 경어의 혼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경어를 간소화하자고 한다는 점이다. 최근, 경어의 혼란이 심하다고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 예로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쓰는 언어 사용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1950년대 이전에는 경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어, 학생이 선생님에게「先生かえりますか」라고 말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위에서 말한 것 같은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게다가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종미사(終尾詞)를 쓰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그 예를 들면,

例8) さっきね、みんなで話し合ってみたんですけどね。
例9) 僕はね、フランス語なんて嫌いですけどね。

이와 같이 종미사(ね、よ)[13]를 사용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언어 사용 경향이며, 이는 현대의 사회구조상, 학생과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신분적인 거리가 이전보다 좁아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경어의 간소화가 진행됨과 더불어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취급방법의 변화에 동반하는 경어의 레벨다운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어에서 경어가 신분경어에서 사교경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4].

일본어에서 경어의 남용 및 혼란함으로는 「お～／ご～」의 남용에 의해 「お～／ご～」가 붙기 힘든 외래어(예-おコーヒー、おトイレ) 조차도 써버린다고 하는 실정이며, 겸양어인「お(ご)～する」가 존경어화되어 가는 현상도 쉽게 볼 수 있다. 주로 관청이나 기업의 공적인 색이 강한 인쇄물 등에서 이런 경어의 남용 및 혼란함을 볼 수 있다.

例10) 先生はいつもこの料亭をご利用するそうです。
例11) ご利用してますか、このマッサージ機械。

例10)의 경우, 약 36%이상의 사람들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대답한 앙케이트 조사

---

13) (ね、よ) 등은 경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중함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어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된다.

14) 大石初太郎、「敬語の本質と現代敬語の展望」、『敬語講座１』、明治書院、1974, p29

(국립국어연구소)의 결과가 나와 있고, 例11)과 같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お(ご)～する」로 말하는 것도, 이것은 겸양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例10)과 例11) 등의 예문에서 「お(ご)～する」가 존경어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의미에서는 무리가 아닌 점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순차 진행되는 것은 경어의 장래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15].

또한,「お(ご)～される」를 존경어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다. (研究者が)お答えされる、出席される、ご説明される 등, 많은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お(ご)～される」의 형태. 특히 「ご～」가 붙는 것을 최근에 많이 접하게 된다. 이는 한자의 경우, 「ご出席なさる」、「出席なさる」、「出席される」가 어떠한 형태여도 통용되기 때문에,「出席される」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순차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경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お(ご)に～なれる」가 「お(ご)に～なられる」(예 - 学者が本をお書きになられる)로 사용되어, 이른바 '이중경어'로 불리는 오용 등, 오용과 혼란함이 심하다고 하는 느낌조차도 받는다. 경어의 간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참고해 보면, 1979년의 NHK 방송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당신은 경어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설문에 답한 결과를 보면, (전국각지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6세 이상의 2639명) '좀 더 간단해졌으면 좋겠다'(39.1%)로 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고, 그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젊은 층이 명확하게 경어의 간소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층이 나이를 먹어도, 이와 같은 결과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경어의 간소화에 대해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어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1983)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어 사용에 관한 설문결과

	간단했으면 좋겠다.	지금이 적당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이 의견은 이상하다)	무응답
일본인	111(27.8)	79(19.8)	96(24)	103(25.8)	7(1.8)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은 현재의 경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간소화할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어 간소화

15) 菊地康人、『敬語』、角川書店、1994, pp.240~242

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상업경어가 있다.

현대상업사회가 무역경쟁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경어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언어 사용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다 한 층 예절을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났고, 그 풍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그 일례로 직장에서 신입사원에게 상업적인 경어 교육을 시키며,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어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비언어경어요소까지도 포함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에 있어서 경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교 교육에서 경어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6].

한편, 경어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으로서 「앞으로의 경어(これからの敬語)[17]」(1951년 문부과학성 발표)에서 경어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어의 과용을 지적(예-お、ご의 정리)함과 동시에 오용을 고치고,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간소화하자는 시도가 있었다. 그 일례로서 천황에 관한 어휘는 전전(戦前)과 전후(戦後)의 차이가 명확하고, 요즘에는 신문보도 상에서 천안(天顔)／용안(竜顔)이 얼굴(お顔), 옥체(玉体)는 몸(お体), 옥산(玉算)은 나이(お年)／연령(ご年齢)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예 - 올해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今年もよい年であることをお祈りします)). 극존칭인 황실경어조차도 이와 같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경어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신분질서 하의 경어가 상호존경어 경어로 바뀌어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적인 교육정책이 경어를 간소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경어현상에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로 봐도 좋을 것이다.

1-4. 商業主義敬語의 氾濫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어 중에는 상업주의적인 경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상업주의에 의한 경어의 과잉현상은 대우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근본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18].

---

16) 학교 교육이 경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일본(辻村氏、1990)에서는 8% 정도로 적게 나타났고, 대부분은 가정교육 및 주위 환경에 그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17) 1952년, 제1기 국어심의회가 문부총리에 건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관계있는 문제의 하나인 경어를 언급하였다. 이후, 실정에 맞춘 명확하고 간소한 새로운 경어법의 사용을 건의했다. 「まえがき」、「一人をさすことば」로 시작하여 「十二むすび」까지 총 12항에 걸쳐 구성되었다.

18) 大石初太郎、前掲書、p69

경어는 본래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경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어를 사용하고 말을 걸어도 상대방은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의 결과로 상업주의적인 경어가 범람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절대적이고 신분적인 경어가 상대경어, 사교경어, 상업경어로 확대되고, 상업주의적인 경어는 점차 그 세력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사회이ㅡ 기본적인 성격과도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어사용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것을 피하고, 경어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第3節 日本語 敬語의 誤用例로 살펴본 問題点

1-1. 尊敬語 用法의 問題点

1-1-1. 尊敬語의 衰退

겸양어의 쇠퇴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현대의 경어 특징의 하나로서 존경어의 쇠퇴, 그리고 감소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1952년의 「앞으로의 경어(これからの敬語)」에서는 그 지침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알기 쉽고 명료하게 = 간소화시킨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구어체 = 문어체 상에서의 탈(脱)대우표현도 현대 경어의 특징으로써 지적된다. 소설이라든가 신문, 방송, 그리고 학술 논문 등에서도 점점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탈(脱)대우표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 3자에 대해서는 그 만큼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바로 앞에 있으면 사용하지만, 본인이 없거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제 3자간끼리 말할 때는 경어를 생략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도 유사한 조사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大石初太郎의 조사에 의하면, 남녀의 고등학생이 친구와 얘기할 때, 「先生」에 관련한 경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조사대상자 중에서 남자학생은 0.3%, 여학생은 3.4%라고 조사되었다[19].

大石初太郎는 이 책 속에서 「제3자 경어의 쇠퇴」를 현대 경어의 특징의 하나로 들었다[20].

例1) 先生は<u>帰った</u>か。

---

19) 大石初太郎、『現代敬語研究」』,筑摩書房、 1983 p50

20) 참고 자료에서도 그러한 예를 오용 내지는 적당하지 않는 표현으로서 지적하고 있었다.

例2) 課長さん、田中という人が第３応接室で待っています。
例3) お客様が待っています。

위의 예문은 행위자의 주체가 모두 「先生」「課長」「お客様」로, 존경의 표현을 써야만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존경어의 생략은 반드시 제 3자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에게 「先生、お帰りになりますか」라는 표현을, 지금은 「先生、帰りますか」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21]. 경어 사용에 관한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22]에 의하면, 「何を読んでいるか」라는 존경 표현에 대한 질문에 「読んでいますか」라고 답한 사람이 17.2%로 가장 많았다. 물론,「お読みにな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라고 답한 사람과 「お読みになっていますか」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6.0%와 15.8%로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読んでいますか」라는 존경어가 삭제된 형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존경표현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자만이 아니라 경의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방에게도 존경 표현을 생략하던가, 경의를 나타내는 정도가 한 단계 낮은 존경 표현을 사용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받은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例4) (上司に) 存じていますか。
例5) (部長は) すでに知っていることと思います。
例6) 部長、私の報告がわかりますか。
例7) (上司に) 遅くまでご苦労様です。
例8) 課長、その書類取ってくれませんか。
例9) (上司に) あのう、取引先の電話番号を教えてくれませんか。
例10) (取引先の人に) 課長のお名前を教えてくれませんか。
例11) 部長、５時頃打ち合わせをさせてもらいたいんですが

이상으로 8가지의 예문을 살펴 보도록 하자.

例4)의 바른 경어 표현은 「ご存じですか」로, 예문의 표현은 청자에 대해서의 존경표현은 아니지만 「知っている」를 높여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로 「存じている」를 썼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존경어의 생략이 아닌 존경어의 오용이라고

21) 『敬語講座６－現代の敬語』、明治書院、1984、 p224

22) 「資料集敬語と敬語意義」(東京外国語大学特設日本語学科、1983)p.70에서 재인용

볼 수 있다.

例7)도 마찬가지고, 원래의 「ご苦労」는 손위 사람이 손아래 사람에게 대해서 사용하는 말로, 손아래 사람에게 수고한 것을 위로한다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존경 표현이 아니라 동급 또는 손위 사람에게는 「お疲れさま」라고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존경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의로도 「ご苦労」를 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의를 나타내는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기 보다는 존경어의 오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도 밑줄 친 부분이 각각 잘못되어 있다. 例5)는 「ご存じのことと」로 바꾸고, 例6)은 「ご理解いただけのですが」로, 例10)은 「いただけますか」、例11)은 「いただきたい」로 고쳐야지만 적절한 경어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3자 경어의 쇠퇴 경향과 이와 같은 경향을 합쳐서 본다면, 경어 사용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존경표현의 쇠퇴라고 하는 경향으로서 정리할 수 있겠다. 또한, 개개인의 경어 형식의 사용에서도 점차적으로 극존칭의 경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あそばす」는 오늘날,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요즘에는 젊은층 사이에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등과 같은 관용표현의 형식을 제외하면 「ございます」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23].

그리고 손위 사람에게 「了解」의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かしこまりました」는, 오늘날에 「理解」의 의미를 가진 「わかりました」로 그 기능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24]. 또한, 외출 할 때 등과 같은 인사말인 「行ってまいります」도 「行ってきます」로 간소화되었으며 정착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하관계가 축소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경어 전반에 걸쳐 보았을 때, 겸양어나 존경어가 쇠퇴해서 정중어가 남는다고 하는 현대 경어의 흐름을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1-2. 過剰 敬語의 使用

과잉 경어의 사용이 일본어의 혼란 요인의 하나로서 지적받고 있다.

---

23) 大石初太郎、『現代敬語研究』(筑摩書房、1983) p68

24) 辻村敏樹、「敬語はどう変わりつつあるか」(『講座日本語教育』第17分冊、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1981) p145

大石初太郎氏는 경어의 과잉사용을 다름과 같이 구분했다[25].

① 상대방, 화제, 장면에 대해 정도를 넘은 과잉사용이라는 것
② 관용 문구위에서 정상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과잉사용이라는 것

1) 접두사 「お」의 남용

접두사 「お」를 붙이는 것이 어려운 말이 있다. 즉, 상응하지 않는 곳에 「お」를 사용함으로써, 「お」의 남용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おコーヒー」「おスープ」「おセット」「おパン」「おニンジン」등과 함께 미화어인 「お」의 남용은 여성에서 특히 많이 볼수 있는 경향이다. 그 이유를 들자면 품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화에 있어 이러한 경향이 명확하지만, 현대 일본어에서는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지나쳐서 남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일본어경어법의 사용실태이다.

例12) お降りのお方はお忘れ物なきようお降り願います。
例13) 是非(私の)お力になってください。

例12)과 例13)를 살펴보면, 例12)는 존경어 「お」의 남용이며, 例13)는 화자 자신에 대해서의 「お」의 남용이다.

紫田武氏의 논문인 「'お'の付く語・'お'の付かない語」[26]에 의하면, 식사, 마음의 움직임, 감정, 몸의 움직임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용어에는 접두사「お」를 붙이기 쉽고, 자연, 광물, 현태, 색깔, 기계공업, 조직에 관한 명사에는 접두사「お」를 붙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외래어인, 「お」로 시작하는 단어, 음절수가 많은 단어, 상스러운 말투 등에도 「お」는 붙이기 어렵다.

「お」를 붙이는지 여부에 확실한 경계선은 없지만, 남용하지 않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です」「~ます」의 남용

「そう思いますですね」「そんなものがありましたですね」등과 같이「です」용법은 문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문이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된다. 또한, 현대의 경어법은 사교경어법적인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です／ます」

25) 大石初太郎、「正しい敬語」、大泉書店、1971、p104

26) 文化庁『待遇表現』(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２)大蔵省、1971, p43~44

체의 경체가 넓게 사용되어,「~だ」체가 오히려 비어체(卑語体)로써 의식되는 경우가 있다[27].

보통, 「~です／ます」체를 문말에 붙여서 경의를 표현하지만, 이 「~です／ます」가 앞으로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는 없는 화자 자신의 품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도록 될 것이다.

상대경어의 조동사인 「~です／ます」는 현대 일본어에서는 경의를 나타내는 의미가 거의 없어져, 실용적인 표현의 사교어체로서 사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따라서, 「~です／ます」등은 경어와는 관계없는 사교문체이며, 대우가치는 없어진다.

3) 이중경어(중복경어)의 남용

이중경어란, 존경어를 2개 또는 3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어법이며, 오용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잉표현인지에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로서, 「お入りになられる」「ご流行される」「おっしゃられる」등을 들 수 있지만, 이들의 예는 한 문장에서 2개의 존경어가 들어 있다. 「お召しになられる」「お見えになられる」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 3개의 존경어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어는 그 사용을 중복한다고 해서 경의를 나타내는 느낌이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辻村敏樹는 말했다[28].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이론과는 관계없이 이중, 삼중의 경어형태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1-2. 謙譲語 用法의 問題点

현대일본어 경어의 특징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겸양어와 존경어의 쇠퇴와 정중어의 우세(優勢)가 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겸양어의 쇠퇴를 겸양어의 오용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겸양어란, 본래 화자와 관련된 사람의 동작, 상태, 소유물 등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경어의 일종이다[29].

하지만, 현대일본어의 경어에서는 이와 같은 겸양어가 상대방, 또는 존경하는 사람의 동작, 상태, 소유물 등 중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즉, 다른 표현방법을 쓰자면, 정중어와 존경어적인 표현으로써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27) 文化庁『待遇表現』(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２)大蔵省、1971, p63

28) 辻村敏樹、『現代の敬語』、共文社、1967, p98

29) 『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1983、謙譲語項、p217

또한, 본고에서 참고하고 있는 현대경어에 관한 자료에서도 반드시 그와 같은 오용례가 지적되고 있어, 겸양어의 사용을 현대 일본어 경어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겸양어의 문제에 대해서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어의 규범을 기준으로 모아 겸양어의 존중어적, 또는 존경어적인 사용은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바르게 고쳐서 사용해야만 하는 교과서적인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오용을 경어규범의 변화의 전조로써 인정하자고 하는 견해도 소수에 해당하지만 존재하고 있다.

大石初太郎는 그의 저서인 「敬語」[30]에서

「존경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에 겸양어를 사용하는 표현이 꽤나 많다. 이러한 예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겸양어의 쇠퇴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표준적인 경어로서 존경어, 겸양어의 구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며, 겸양어의 쇠퇴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표준적인 규범의 건재, 즉, 존경어와 겸양어 사용구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宇野義方씨의 주장처럼 「岩波講座日本語4-敬語」[31]에서 말한 현대 경어의 특징으로「こちらへまいりませんか」「先生が私の所にうかがったとき」등과 같은 겸양어 오용례를 들어,

「이 예문들은 경어의 오용례를 말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예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래의 겸양어로서가 아니라, 정중어에 전용(転用)되어 안정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여 정중어화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宮地敦子도「言語生活」11호인「敬語の誤用-「目」「耳」欄から-」[32] 속에서 「겸양표현의 오용은 각각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정중존경의 용법으로서 계속적으로 사회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

30) 大石初太郎、『敬語』(筑摩書房、1975) p103,104.

31) 『岩波講座日本語4-敬語』、岩波書店、1997、 p183

32) 宮地敦子「敬語の誤用-「目」「耳」欄から-」、『言語生活』11号、1961、p47, p134

서도 다루었다. 이것은 「お~になる」「いらっしゃる」등의 존경 표현의 오용이 적고, 또한 「目」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에 반하여, 「お~する」등, 겸양표현의 오용이 현격하게 많아지고 또한, 반성을 거쳐 문장어인 「目」편에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자신의 동작을 낮춰서 등급을 매기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존경한다고 하는, 애둘러서 하는 수속을 취하는 겸양의 의도는 어쩌면 점점 쇠퇴해지는 것 같다. 「おる」「致す」「申す」등은 본래의 겸양어로서가 아닌, 정중어 혹은 존경어로 왜곡되어 후세로 이어갈 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여, 겸양어의 쇠퇴와 존중어, 존경표현으로의 전용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인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의 일본경어로 가장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겸양어에 대해서 각 참고자료로부터 예문을 추출해서 분류하고 분석해, 그 변화의 성격을 추적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오용례가 가장 ㅁ낳이 발견되는 겸양동사의「申す」「あげる」「いただく」「いたす」「うかがう」「まいる」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2-1.「申す」

「申す」는 일반적으로 「言う(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겸양어이며 정중어로도 사용된다고 한다[33]. 『日本国語大経典』[34]속에서의 「申す」항목을 보면,

> ① 「言う」の謙譲語で、言う対象を敬う。申し上げる、言上する　公式に言上する場合や改まって申し上げる場合に用いられた。
> ⑥　主として、かしこまり改まった気持での対話や消息に用い、「言う」をへりくだり、あるいは丁重に表現する。申します。

라고 되어 있다.

奥山益郎의 「現代敬語辞典」[35]에서의 「申す」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나

---

33) 「申す」는 「言う」의 겸양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 「ではそのお荷物は後ほど届け申しましょう」와 마찬가지로 「する」의 겸양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본고의 참고자료에서는 이 「言う」의 오용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34)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1994

와 있다.

「言う」の意の謙譲語で、上代から使われている。なお、丁寧語としても平安時代から使われている。

위의 설명처럼, 「申す」가 가진 본래의 역할은 「言う」의 겸양어이며, 「私が申したのは、ほんの私身でございます」처럼, 손아래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본래의 용법이었다.

그리고 겸양어로서의 본래의 기능은 그 외에도 「丁寧語としても平安時代から使われている」(『現代敬語辞典』이라던지, 「「言う」をへりくだり、あるいは丁重に表現する」(『日本国語大辞典』과 같은 존경어로서의 기능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大辞林(三省堂、1992)의 속에서도 「申す」항목을 보면,

① 「言う」の謙譲語。動作の及ぶ相手を敬っている。
② 「言う」の丁寧語。聞き手を敬っていう。

라고 하며, 「申す」의 또 다른 하나의 용법을 「丁寧語」로 정의했다.

②의 예문을 들어보자면, 「田中先生がこう申されました」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제시한 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課長に申されたことに賛成いたします」와 같은 예문이 ②의 오용례로서 문제되고 있다. 현대의 경어법에 따르면, 「申される」는 경어의 오용이라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申す」는 겸양어이며, 「課長」는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課長が申された」라고 하는 것은 경어의 적용을 틀리게 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국회나 학회, 회의 등과 같이 격식을 갖춘 곳에서의 경우에 「言う」의 존경표현인 「言われる」「おっしゃる」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오용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例14) 部長が申されていた。
例15) 課長が申されたことに私は異議を申し立てます。
例16) 先週の契約の件で社長が申されたことについてですが
例17) 社長が申されました。

---

35) 奥山益郎、『現代敬語辞典』、東京堂、1993

例18) 先日、先生が申されました。
例19) 田中教授も申されました。
例20) この契約につきましては、部長が申されますには、
例21) ただいま先生も申されましたように、
例22) 失礼ですが、お名前は何と申されますか。

이와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例18)의 예문을 보면,

「「申される」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잘못된 경어 표현의 예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겸양어와 존경어를 뒤죽박죽 뒤섞은 잘못된 표현이다. 「申す」는 겸양어로, 「(自分が)申し上げます」와 같이 자신의 동작에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이것에 존경어의 「れる」를 조합하여도 존경표현으로는 되지 않는다. 바른 표현은 「おっしゃる」이다」

로 해설하여,「申される」를 겸양어를 존경어로써 사용한 오용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例20) 의 예문을 보면,

「「申す」는 본래 손아래 사람이 손위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표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例20)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경어의 오용으로서 피해야 할 표현이라고 당연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申す」는 미화어로 이동했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용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おっしゃる」라는 상위표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르는 편이 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여 「申す」의 미화어 즉, 정중어로서의 용법을 인정한다면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例17)의 예문을 보면,

「「社長が申される」라는 표현은 허용되는 것 같다. 「社長」라는 손위 사람의 동작의 경우는 「おっしゃる」가 당연하다」

라고 해설하여, 「申される」의 표현의 확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규범에 맞는

표현인 「おっしゃる」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例15)의 예문을 보면,

「例15)과 같은 표현은 오용이라고 보여진다. 「申す」는 겸양어로써, 「課長」를 사용하여 높은 대우를 해 주어야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어의 적용에 실수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의 사용 빈도는 실제로 적지 않다. 특히 회의등과 같은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국회등에서도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의 교수회의 등에서도 「先ほど田中教授が申されたように」등과 같은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바로 고쳐진 존경어라고 하는 수용방식이 일반적인 것 같다」

라고 해설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위와 같은 해설에 의하면, 각각의 예문은 오용으로서 단정되어 있거나, 또는 사용의 일반화를 인정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申される」대신에 존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예문을 위와 같은 해설처럼 단순하게 겸양어를 존경어로서 사용한 오용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例14~例21의 예문에서는 「申される」의 주체가 「課長」「社長」「先生」등 3인칭이며, 또한 존경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상이지만, 例22)과 같은 경우에는 「申される」의 주체가 예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로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의 「申される」의 주체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는 경어표현 즉, 「申される」를 존경어로서 사용한 오용이라고 본다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申される」가 존경어로서 사용된 예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申す」의 사전적 의미 속에서 「大辞林」의 「申す」항목에서의 ②번을 살펴보면, 「「言う」의 丁寧語」라는 해설 뒤의 예문에서 「田中先生がこう申されました」라고 하는 문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申されました」를 정중어로서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예문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진 例17)~例19)도 또한 정중어로서 사용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例17)~例19)의 각각의 해설에는 「申す」를 겸양어로써 볼 것인지, 정중어로써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는 별개로, 상위표현인 「おっしゃる」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은 「申される」를 존경어로써 사용한 오용이라고 본 입장일 것이라는 것과, 도는 정중어로써 사용된 것이라고 보려는, 양 쪽 모두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에 정중어를 사용한 것이라

고 보는 입장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例14)~例22)의 예문 중에서 例14)~例16)와 같은 예문의 「申される」는 「ます」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청자에 대한 배려만 나타낸 경어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정중어로써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즉, 존경어로써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申す」항목에서의 ②번의 해설에 대한 설명으로서,

> 「「申す」는 본래, 겸양어지만, 정중어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전적으로 상대방(청자)에 대해서 정중한 언어표현을 하기 위한 말로써도 사용된다. 「なんと申しましても、先方に決定権がございますから」등과 같이, 황공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말투이다. 이것과의 관계에서 「申される」는 「おっしゃる」「言われる」등과 같은 표현보다도 정도가 더 높고, 특히 바른 표현의 존경어라고 하는 느낌이 생길 것이다 」

라고 하여, 「申される」를 정도가 높고 격식을 갖춘 존경어로 보는 입장을 「申す」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겸양어의 오용에서는 「謙譲語~れる、られる」형과 겸양어 단독형이 같이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申される」만이 오용으로써 나타나고 있고, 「申す」의 단독형은 오용으로써 지적받지 않는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申す」의 오용이 그만큼 없다고 하는 것은 「申す」는 존경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있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申される」가 형태적으로 고정된 격식을 갖춘 존경어로서의 사용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존경어로서는 「おっしゃる」와「言われる」가 그 위치를 명백히 지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申される」가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용법이 존경어로서 사용되었는지 정중어로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이 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서 생각되어져야 하겠다.

1-2-2. 「あげる」

「あげる」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与える」라는 의미의 겸양어이지만, 「現代敬語辞典」의 「あげる」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나와 있다.

「与える」라는 의미를 가진 겸양어로, 중세, 무로마치(室町) 시대 이후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進ず」「まいらす」와 함께,「あぐ」또는「あぐる」로 사용하고, 현대 구어에서는「あげる」가 되었다. (후략)

「あげる」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은 겸양어이기 때문에, 「課長、良かったらこの本をあげましょう」와 같이 손아래 사람이 손위 사람에게 대하는 동작을 낮춰서 말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猫にえさをあげる」와 같은 표현이 대부분 별다른 저항 없이 사용되고 있어 경어론 속에서는 많은 의론비등(論議沸騰)의 대상이 되어 왔다.

例23) (お母さんが息子に)タマにえさをあげてちょうだい。
例24) 猫にえさをあげる。
例25) おゾウさんにビスケットをあげる。
例26) (ラジオ、男性インタビュー)毎年今頃、バラの花に肥料をあげるんですか。
例27) おサルさんにミルクをあげる。
例28) 息子におもちゃを買ってあげました。
例29) (主婦が自分の子に人形を与えたことを言う言葉)子供にお人形をあげました。
例30) うちの子供なんか、いろいろな本を買ってあげても全く読まないですものね。
例31) お服を買ってあげたのに、うちの息子ったらちっとも着ようとしないんですよ。
例32) 息子にも見せてあげてくださいませんか。
例33) この見積書を取引先の担当者にあげてください。

위와 같은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손위 사람에 대한 동작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あげる」가 손아래 사람에게, 심한 경우에는 동물이나 식물에까지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겸양어로서의 「あげる」가 가지는 기능에 충실할 때, 위의 예문 중에서 例23)~例32)은 대상이 손아래 사람과 동물 등에 있고, 例33)은 동작의 주체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やってください」또는 존경표현을 사용해서「お越しください」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제시한 「あげる」는 특히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やる」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거칠게 느껴지게 때문에 품위 있게 말하기 위하여 「あげる」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36]. 이와 같은 형태의 「あげる」의 사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지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말할 수 있다.

---

36) 『岩波講座日本語 4 -敬語』、岩波書店、1977、 p.181

辻村敏樹는 「あぐ(る)、あげる」가 근대에 들어 「미화어(정중어)」의 방향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37]. 그리고 『日本国語大辞典』의 「あげる」항목의 (六)의 ②에서도 「敬うべき人にさし出す、さしあげる、また、現代では対等、または目下の者に与える意の丁寧な言い方」로 설명하고, 정중어적인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敬語用法辞典』에 게재된 奥山益郎가 저술한 「現代敬語一覧表」를 보면 「あげる」가 겸양어란(欄)에도, 정중어란(欄)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あげる」가 겸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높은 경의를 나타낼 경우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반하여 그 경의의 정도가 점점 약해져, 근데에서는 정중어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표현은 현대에 와서 그 정중어적인 용법도 점점 그 경의가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例34) 足りない分の金額は次の日におあげしましょうか。

이와 같은 예문은 겸양어인 「あげる」와 겸양을 나타내는 첨가형식인 「お~する」가 묶였기 때문에 이중경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あげる」의 경의를 나타내는 정도가 낮으면 「お(ご)~する」등의 첨가형식의 성행(盛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やる」가 겸양어로써 사용된 「あげる」가, 「やる」가 품위없는 언어 표현으로 전락되는 것에 의해 더욱 정중어화되고, 한층 더 비경어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의의 정도가 낮아진 것에 의한 비경어화현상의 예로 「食べる」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전에 「食う」에 대한 겸양어로서 사용된 「食べる」가 정중어화되었지만, 결국 보통어가 되어 「お食べになる」와 같은 표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며[38],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겸양어 속에서도 그것과 유사한 예문이 많이 발견된다.

1-2-3. 「いただく」

「いただく」는 「もらう」라고 하는 의미의 겸양어이며, 특히 「飲食する」라고 하는 의미의 겸양어로써 많이 사용되어, 식사하기 전에 말하는 「いただきます」는 인사말로써 관용어화되고 있다.

---

37) 辻村敏樹『敬語の史的研究』、東京堂出版、1968、 p.380

38) 辻村敏樹、「敬語はどう変わりつつあるか」、『講座日本語教育』第17分冊、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1981、 p.145

「いただく」는 「先日は結構なお品をいただき、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라던가, 「では、お先にいただきます」와 같이, 자신이 하는「もらう」、「食べる」라고 하는 동작을 낮춰서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사용되는 것이 본래의 용법이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낮춰서 하는 것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いただく」가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방의 행위에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하는 오용이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例35) コーヒーでもいただきましょうか。
例36) (レストランで目上の人に注文を聞くのに)何をいただきますか。
例37) 手作りの方がおいしくいただけます。
例38) (レストランで書いてある)店内でお酒もいただけます。
例39) 課長、オレンジを一緒にいただきませんか。
例40) (社長が部長に)経理課で企画経費をいただいてください。
例41) 田中先生が学生からいただいたプレゼントだそうです。
例42) 出張経費を経理課でいただいてきてください。
例43) 先生、名簿をいただきましたか。
例44) 田中先生が父上からいただいたものです。
例45) 見積書は会計課でいただいてください。
例46) 社長、何をおいただきになりますか。

위의 예문에서 보면, 例35)~例39)의 경우에는「飲食する」의 주체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존경어인 「めしあがる」를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겸양어인 「いただく」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例40)~例46)도「もらう」의 주체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로 「いただく」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例40)~例46)와 같은 경우, 경의를 바르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겸양어인 「いただく」가 아닌, 「おもらいになる」로 말하고 있지만, 「お受け取りなる」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을 다른 자료에서는 모두 오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いただく」의 사용이 자신의 행위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을 표현하는 것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중어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39].

---

39) 大石初太郎、『敬語』、筑摩書房、1975、 p.139

『日本国語大辞典』의 「いただく」항목의 (一), ④를 살펴보면,

「「食う。飲む。」の謙譲語。つつしんで飲食する。また、「食う。飲む。」の丁寧な言い方」

라고 나와 있고, 『敬語用語法辞典』의 「現代敬語一覧表」에는 겸양어의 란(欄)에는 물론이고, 「いただく」가 丁寧語欄에도 속해있어, 정중어로서의 용법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존경어로서의 「いただく」의 용법도 앞에서 다루었던 「申す」와 「あげる」와 마찬가지로, 경어 종류의 사용구분에 대해서의 규범의식의 혼동과 희박화(希薄化)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이와 같은 표현을 기존의 규범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오용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의 일반화를 고려하여 「いただく」의 정중어 내지는 존경어로서의 용법을 인정해야 할지에 있는 것이다.

1-2-4. 「いたす」

「いたす」는 「する」라는 의미의 겸양어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정중어로서 인정되고 있다. 앞에서 다루었던 「申す」와「いただく」등이 규범적으로는 겸양어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도 거의 용법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いたす」는 규범적으로 대부분 정중어로서 인정받고 있다.

『現代敬語辞典』속에서의 「いたす」 항목을 살펴보면, 「「する」の意の謙譲語として、(中略)次第に丁寧語化している」로 나와 있고, 『日本国語大辞典』속에서의 「いたす」항목의 (一)의 ④에는 「話相手に対し、自分や自分の側の者を下位に置く場合や、改まった場面などで、「(物事を)する、なす」の意に用いる」라고 나와 있어, 각각의 겸양어 용법과 정중어 용법을 함께 인정하고 있지만, 『敬語用法辞典』의 「現代敬語一覧表」와 宮地裕가 저술한『現代敬語の体系』40)에서는 「いたす」를 정중어에만 분류시켜 겸양어의 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면 「いたす」는 이미 겸양어로 보기 보다는, 정중어로 보는 견해가 보다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例47) ご乗車いたし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40) 『講座国語史5-敬語史』、大修館書店、1976、 p.390

例48) 先生のお声がいたしましたから

例49) 社長は忘年会に出席いたしますか。

例50) (レストランで従業員が)どちらさまでいたしますか。

例51) 忘れ物いたしませんようお気をつけてください。

例52) 口をおさえたり、鼻をおさえたりいたしながら笑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例53) (ラジオのニュースで)田中さんが暁子夫人とともに成田空港に到着いたしました。

例54) (電車駅のアナウンス)まもなく発車いたします。乗車してお待ちいたしてください。

위와 같은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いたす」의 주체가 모두 「先生」나「乗客」등으로,「する」존경어인 「なさる」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용으로서 문제되고 있다.

하지만, 例54)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동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존경표현을 쓰려고 한다면 「なさる」가 아닌 「いたす」가 삭제된 「お待ちください」로 되야만 한다. 만일, 「いたす」의 정중어적 용법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위의 예문은 소재(素材)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에 대상경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경어사용의 불비(不備)이며, 오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겸양어적인 성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의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 「する」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いたす」를 사용한다면 저항감이 생기지만, 앞에서 다루었던 겸양어 등과 같이 실제로 「いたす」도 경어분류에 대한 규범의식의 희박화에 의해, 각각 겸양어, 정중어,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이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겸양어로서의 「いたす」에 대해, 규범의식의 쇠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문은 「申される」와 같은 경우에서, 「いたす」와 존경의 조동사인 「れる」의 결합형인 「いたされる」의 사용이다. 그 예문을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例55) 教授は最近どんな研究をいたされていますか。

例56) 教授が長年研究いたされた結果。

例57) (社長に)会議には出席いたされますか。

例58) 部長がご説明いたされた件は。

1-2-5. 「うかがう」

「うかがう」는 「聞く」와 같은 의미의 겸양어로, 중세·무로마치(室町)시대 이후, 사용되어 왔지만, 「訪問する」와 같은 의미의 겸양어로서는 에도(江戸)시대(1603~1867) 후기부터 사용되었다[41].

---

41) 奥山益郎、『現代敬語辞典』、東京堂出版、1993、「うかがう」항목

『日本国語大辞典』의 「うかがう」항목(二)의 ①②를 봐도 각각, 「「問う」「聞く」の謙譲語で、その動作の相手を敬う」、「「訪問する」の謙譲語で、相手をうやまっていう」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敬語用法辞典』의 「現代敬語一覧表」와『講座国語史5-敬語史』에 수록되어 있는『現代敬語の体系』에서도 「うかがう」는 우선 겸양어로서 분류되어 있다.

즉,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낮춰서 말하는 경우에「教授のお話を伺って、問題が解けました」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었지만, 규범적으로는 혼동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표현에서는 다른 용법으로서 사용된 오용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 형태도,「うかがう」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한 형태,「うかがう」에 존경의 조동사 「れる、られる」를 접속한 형태, 존경의 보조동사「お~になる」를 결합시킨 형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먼저 「うかがう」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例59) あちらにパン屋の看板が出ていますね。あちらでうかがってください。
例60) この件はあちらの窓口でうかがってください。
例61) 受験の申し込みは受付でうかがってください。
例62) 教授が私のところにうかがったとき、
例63) 明日、部長が私どもにうかがう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ましたが、

例59), 例60), 例61)는 「聞く」또는「尋ねる」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うかがう」의 주체가 청자이기 때문에 겸양어가 아닌 존경어, 즉 「お聞きになってください」라던가, 「お聞きください」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며, 「聞いてくださ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단순하게 「聞いてください」라고 말하면 왠지 공손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 겸손한 표현을 쓰려고 하는 의도로 「聞く」대신에 「うかがう」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국, 현대 경어의 규범에 의하면 오용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의 의도에서는 「うかがう」를 정중어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例62)과 例63)은 「訪問する」의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며, 「うかがう」의 주체는 「教授」와「部長」이기 때문에 화자는 존경어를 사용할 의도로 「うかがう」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른 표현으로 정정한다면 「いらっしゃる」나 「おいでになる」정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うかがう」에 존경의 보조동사인 「れる、られる」나 존경의 보조동사

인 「お~になる」등이 결합된 형태이다.

例64) 部長はあの日どこへ伺われたのでございますか。
例65) 明日はパーティーに伺われますか。
例66) あなたも約束の場所にうかがわれますか。
例67) (総理夫人と社長夫人との会話)総理夫人：奥様の先週、どちらへ伺われたのでございますか。
例68) 受付でお伺いになってください。

앞에서도 몇 번이나 등장한 형태이지만, 겸양어와 존경의 조동사, 또는 보조동사의 결합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표현이지만, 화자는 경어 종류의 구분에 대해서의 규범의식없이, 단순하게 경어인「うかがう」에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나 보조동사등을 첨가하면 한층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6. 「まいる」

「まいる」는 본래는 겸양어로, 『現代敬語辞典』에서「まいる」가 나온 항목을 보면,

「上位者のもとへ「行く」「来る」の意の謙譲語で上代から続いている」と書かれており、謙譲語としての用法だけを説明しているが、『日本国語大辞典』の「まいる」の項の(一)には「「行く」の謙譲語で行く先方を敬う」といって謙譲語としての用例を一番の意味で置いているものはもちろんで、(ニ)では「(一)の「行く先」を敬う性質が失せ、丁重・荘重に言うのに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もの。対話敬語として用いる。
(中略)
聞き手に対しへりくだる気持が無くなり、一般的に「行く」「来る」を重しく、堅苦しい口調で言うのに用いる。時に尊敬すべき人の動作に用いるものもあった。」

라고 하여, 정중어적인 용법과 존경어적인 용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은 「まいる」를 겸양어로 규정하고「まいる」의 정중어적인 용법과 존경어적인 용법을 오용으로서 지적하고 있다.

例69) どの方が出てまいりますか。楽しみでございます。

例70) 今からまいりませんか。
例71) 教授、まいりましょう。
例72) お宅へまいりませんか。

위의 표현은 모두 「行く」나「来る」를 사용하면 경의를 나타내는 정도가 부족하다던가, 불손하다고 느껴져, 겸손하게끔 말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まいる」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을 모두 「いらっしゃる」로 바꾸어 사용하는 편이 바른 경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まいる」도 앞의 다른 겸양어등과 같이 「れる、られる」를 결합시킨 형태가 오용례로 지적받고 있다.

例73) 部長、あしたの午後、取引先に参られますか。
例74) (上司である課長に)明日、取引先にまいられますか。
例75) 教授、大学には何時にまいられますか。
例76) 教授はいつまいられますか。
例77) 私どもの家にまいられまして恐縮です。

대부분 유사한 예문을 들어 오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まいる」와 「れる、られる」의 결합형, 또는 「まいる」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조금 더 높은 경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해 보면, 대표적인 겸양어의 동사가 정중어적인 용법으로, 또는 존경어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6개의 동사 중에서 「申す」와 「あげる」는 주로 정중어로서, 「いただく」「いたす」「うかがう」「まいる」는 『現代敬語辞典』에서 정중어로서 인정되고 있고, 『日本国語大辞典』에서는 「うかがう」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동사가 정중한 표현법, 또는 정중어적인 용법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다음에 나타난 표는 위에서 자세하게 살펴 본 6개 동사의 사전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사용형태, 겸양어 외에 어떤 용법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등의 내용을 요약해서 도표화한 것이다.

〈표 3〉 6개 동사의 요약도표

	『現代敬語辞典』의 정의	『日本国語大辞典』의 정의	오용의 용법	구체적인 사용형태
申す	※겸양어 ※정중어로서도 사용된다.	(一)①겸양어 ⑥정중에 표현한다	존경어적인 용법	申される
あげる	※겸양어	(六)②겸양어,丁寧한 말투	정중어적인 용법	あげる
いただく	※겸양어	(一)④겸양어, 丁寧한 말투	정중어적인 용법 또는 존경어적인 용법	いただく
いたす	※겸양어 ※丁寧語화되고 있다	(一)④겸양어, 새로운 장소등에서 사용된다	정중어적인 용법 또는 존경어적인 용법	いたす、いたされる
うかがう	※겸양어	(ニ)①②겸야어	정중어적인 용법 또는 존경어적인 용법	うかがう、うかがわれる、おうかがいになる
まいる	※겸양어	(一) 겸양어, (ニ)정중하게 말하는데 사용된다	정중어적인 용법 또는 존경어적인 용법	まいる、まいられる

겸양어의 쇠퇴는 일본경어체계의 복잡성에 의한 사용구분의 난해함의 결과로 간소화를 지향하는 현대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상하관계와 신분관계가 경어 사용의 주요기준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인간관계에서 명확한 상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형태의 경어표현에 대해서의 경어사용자의 요구가 희박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第3章 結　論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처음에 작은 특징적인 변화가 점차 체계적이며 전체적인 변화가 되어 갔기 때문에, 혼란과 오용의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 변화의 경향을 관찰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경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에서 현대 경어에서의 혼란과 오용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예문을 찾아 분류, 분석하고 변화의 주요한 흐름을 추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 방법으로서는 오용례나 틀리기 쉬운 표현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예문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 결과, 현대 경어의 특징으로서 우선, 존경어의 쇠퇴와 간소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첫번째로 「제3자 경어의 쇠퇴」즉, 제3자에 대하여 그 만큼의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이 눈앞에 있다면 사용하지만, 본인이 없거나, 그 장소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 3자끼리 말하는 경우에는 경어를 생략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과잉경어의 사용이 일본어의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지적되었다. 과잉 경어란, 1) 상대방, 화제, 장면에 대하여 알맞은 정도를 넘어 과잉 사용하는 경우와 2)관용어 상에서 정상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과잉 사용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접두사 「お」의 남용과 「~です」「~ます」의 남용, 이중경어(중복경어)의 남용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로, 존경어에 관한 일본어 경어의 남용 및 혼란으로서는「お~／ご~」의 남용도 지적받고 있다. 본래「お~／ご~」가 붙는 것이 어려운 외래어(例：おコーヒー、おトイレ)에조차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며, 겸양어인 「お(ご)~する」가 존경어화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한자인 경우「ご出席なさる」「出席なさる」「出席される」가 어떤 형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出席される」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유추이며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네번째로, 존경어 이상으로 쇠퇴가 심한 것이 겸양어이다. 그 중에서 오용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겸양동사인 「申す」「あげる」「いただく」「いたす」「うかがう」「まいる」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申す」는 원래 겸양어 이지만, 「申される」라는 형태가 형태적으로 점점 고정화되어, 그 용법이 전경어로서 사용된 것인지 정중어로서 사용된 것인지는 명확하

게 구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やる」의 겸양어로서 사용된 「あげる」에 관해서는 「やる」가 품위 없는 말로 전락함으로써 정중화 되고, 한층 더 비경어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받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겸양어인 「いただく」도, 최근에서는 자신의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정중어화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른 겸양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들 겸양어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어의 단독사용이 경의를 충분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어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보다 높은 경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수하여 존경어나 정중어로서 사용되거나, 이들 겸양어가 존경의 조동사나 보조동사와 결합하거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6가지의 대표적인 겸양어의 동사에 관해서는, 정중어적인 용법이나 존경어적인 용법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개의 동사 중에서 「申す」와 「あげる」는 주고 정중어로서,「いただく」「いたす」「うかがう」「まいる」는 『現代敬語辞典』에서는 정중어로서 인정받고 있고, 『日本国語大辞典』에서는 「うかがう」를 제외한 5개의 동사가 정중한 표현법, 또는 정중어적인 용법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경어 종류의 사용구분에 관한 규범의식의 혼동, 또는 희박화에서 오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문제는 이와 같은 표현을 기존의 규범의식을 기준으로서 계속 오용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의 일반화를 고려하여 「いただく」의 정중어 내지는 존경어로서의 용법을 인정할 것인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상하관계가 축소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되어, 경어전반에서 볼 때, 겸양어와 존경어가 쇠퇴하고 정중어가 남는다고 하는 현대경어의 흐름의 특징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현대경어표현법의 추이에 관해서, 현대는 과거의 시대와는 다른 경어의 표현형식의 면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경어가 상대(청자)경어의 일변도의 경향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어가 「~です」「~ます」주체의 정중어 표현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른바 존경어와 겸양어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경어에 있어서 존경어와 겸양어의 쇠퇴는 상대경어(청자경어) 중심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존경어 등이 정중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경어의 레벨다운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앞 시대의 경어는 계급제의 반영에 의한 계급경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여

러 계급의 언어표현의 차이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인 지위의 반영, 또는 상호관계의 반영이었다. 상하관계, 신분관계가 경어 사용의 주요한 기준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경어사용의 기준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경어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상업경어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어가 그 전반적인 시대적 특징으로서 대체로 간소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서의 상업경어만은 전반적으로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풍부해져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경어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언어로는 왠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한 층 더 예절을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어는 본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경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어를 사용하여 말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의 결과 상업주의적인 경어가 범람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 절대적이고 신분적인 경어가 상대경어, 사교경어, 상업경어로 확대되고, 이 상업주의적인 경어는 점점 그 세력을 확대시켜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参 考 文 献

【単行本】

山田孝雄、『敬語法の研究』、1931. p.29.

宮地裕、「現代の敬語」、(『講座国語史5敬語史』)

宮地裕、「待遇表現」、(『日本語と日本語教育-文字・表現編-)

大石初太郎、『正しい敬語』、大泉書店、1971

大石初太郎、『敬語の誤用の実例』(『国文学解釈と鑑賞』37巻6号)、1978

大石初太郎、『現代敬語研究』、筑摩書店、1983

大石初太郎・林四郎、『敬語の使い方』、明治書院、、1983

奥山益郎、『現代敬語読本』、ぎょうせい、1978

奥秋義信、『敬語の誤典』、自由国民社、1980

春日和男、「敬語の変遷(1)」『敬語(講座日本語4)』、岩波書店、1977

辻村敏樹、『現代の敬語』、共文社、1967

辻村敏樹、『敬語論考』、明治書院、1992

林四郎・堀川直義、『敬語用例ガイド』、明治書店、1979
林四郎・南不二男編、『現代の敬語』、明治書院、1973
文化庁、『待遇表現』、文化庁、1975
金仁炫, 『한일 양어의 대조연구와 일본어교육』, 어문학사, 2004
김효자, 『일본어 경어표현』, 시사영어사, 1994
백동선, 『일본어의 대우표현 연구』, 보고사, 2003
최영철, 『한일 양국의 경어교육의 고찰』, 단국대학교, 1989

【論文類】

홍민표, 『한일양국어 경어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오세회, 『현대일본어의 경어 고찰 - 특성・ 문제점 ・ 추이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高橋万里子、『現代日本語の考察-談話分析を中心に-』、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윤동욱, 『현대일본어의 경어용법의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최인녀, 『일본어 경어 사용에 관한 고찰』, 중앙대, 2002
정소영, 『현대일본어의 경어오용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김진희, 『일본어 경어교육의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7805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은혜 한문 : 金恩恵 영문 : KIM EUN HYE				
주 소	광주 광역시 동구 황금동 13-6				
연락처	E-MAIL : hamster99@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일본어 경어용법의 연구 - 경어의 특징 및 오용례를 중심으로 영어 : A Study on how to use an Honorific way of Addressing people in Japanese -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honorific Japanese and Examples of its misuse Japanes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09년 8월 일

저작자: 김은혜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